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11월 12일
제1974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3>



<열 처녀의 비유>, James Tissot

연중 제32주일 (가해)

제 1 독 서 지혜 6,12-16 | 지혜를 찾는 이들은 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화 답 송 시편 63(62) |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서 1테살 4,13-18 <또는 1테살 4,13-14>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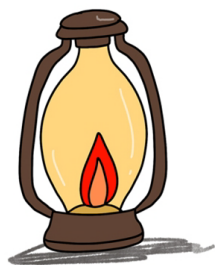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복 음 마태 25,1-13 |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¹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 ²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 ³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 ⁴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 ⁵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 ⁶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 ⁷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 ⁸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 ⁹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 ¹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 ¹¹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 ¹²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 ¹³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오복음서 25장 13절

바오로 말 콘텐츠

복음 묵상

이번 주일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입니다. 제1독서 지혜서의 저자는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 준다.” 구약 전통에서 하느님 말씀인 ‘토라’(오경, 율법)는 후대에 ‘지혜’로 변경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하느님-토라-지혜’ 순서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의인화된 지혜를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요한 1,1-18 참조).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뵙게 될 희망이 그리스도인의 종말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에서 바오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교우들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 위로 안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복음에서 마태오 복음사가는 열 처녀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니 늘 깨어 준비하라는 신앙의 권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신 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재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위령미사 봉헌 “영혼이 겸손한 이들은 천국의 길 드러내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3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지난해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교황, 추기경 6명, 주교 147명을 위한 위령미사를 주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 올해 1월 로마에서 선종한 전 교황청 재무원장 조지 펠 추기경도 이날 위령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교황은 위령미사 강론에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단순히 많은 미덕 중 하나가 아니라 삶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겸손할 때, 하느님의 필요 안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하느님께 모든 신뢰를 두면서 하느님을 위해 우리 마음을 비워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지난해 12월 31일 선종한 베네딕토 16세에 대해서는 “신앙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아이디어도, 따라야 하는 도덕적 관념도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셨다”면서 “예수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두근거리고, 그분의 눈은 우리의 고통을 동정심에 가득 차 바라본다는 사실을 모든 이에게 알려 주신 분”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동정심이 많은 주님께서 인간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인 죽음에 마음 아파하시듯,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을 똑같은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전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밝혔다. 이어 “주님께서 특별히 가장 외롭고, 하느님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계신다”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작은 것’과 천국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영혼이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님께서 겸손한 이를 사랑하는 이유도, 겸손할 때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은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자 처음으로 자신을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겸손한 일꾼’이라고 지칭했던 일도 회상했다.

교황은 “진실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들은 겸손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며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며, 주님 포도밭에서 수확한 열매를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3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지난해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교황, 추기경과 주교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주례하고 있다.

위령성월 기도

시편 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으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1 2차 헌금

- 이번 주일 미사 중에 성직자 은퇴기금(Retirement fund for Religious)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84차 세례성사

- 세례식 : 11월 12일(일) 오전 10시 미사 중 (21명)
- 환영식 : 11월 12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A-1,2)
- 새로운 영세자들이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단체장 회의

- 일시 : 11월 12일(일) 오전 11:30 (B-1,2)

4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2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KoC 모금을 위한 봉어빵 판매

- 일시 : 11월 12일(일) 오전 8시 미사 후 (친교실)
- KoC 모금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문철 아우스딩 (571) 236-8043

6 구역 연도 대회

- 일시 : 11월 18일(토) 미사 후
- 토요 특전미사는 오후 6시로 변경됩니다.
- 총 상금 \$3,000
- 평가 기준 : 인원, 가락, 입장·퇴장시 질서 등
- 교육용 Youtube 참고 링크 :

https://youtu.be/ZpvXtjivB74?si=6_6o-vVlnTbrAJzd
<https://youtu.be/Vj0T00FWmTw?si=D1WeUTY7Auv-J5fkN>

7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9일(일) 오전 11:30 (B-3,4)

8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9일(일) 오전 11:30 (A-1,2,3,4)
- 안나회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9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10 연중 제33주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주제 : “누구든지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토빗 4,11)
-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2차 헌금에도 사랑을 행해주세요.

11 2023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경연 대회

- 성당 앞에 놓여질 성탄 트리를 꾸미기 위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각 단체와 구역별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며 평가 후 상금도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 및 구역은 복지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 미사 후 친교실이나 성물부
- 문의 : 복지부 김 안드레아 (703) 517-1574

12 2024년 매일미사 신청 및 병초(Box) 주문

- 성물부에서 2024년도 매일미사 책 신청을 받습니다. 1년분은 \$900이며, 날권은 \$9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쓰일 제대초 봉헌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성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irfax Memorial Park 추모행사

- 일시 : 12월 17일(일) 오후 6시
-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11월 위령성월

위령성월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정화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 선행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 먼저 간 모든 성인들이 현세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눈물을 줄이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운다는 것은 잘못된 아니지만 당신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 성 암브로시오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루카 11,37-41)



교중미사 예물봉헌

11/12 이번 주 센터빌 3구역

11/19 다음 주 센터빌 4구역

성당 청소

11/12 이번 주 라우던 1, 2구역

11/19 다음 주 버크 1, 2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11월 5일
(연중 제31주일)

봉헌금		\$ 7,772.92
모든 성인의 날 헌금		\$ 2,919.00
교무금		\$ 10,070.00
교무금(신용카드)		\$ 5,390.00
감사 헌금		\$ 2,500.00
온라인 봉헌		\$ 2,575.00
합계		\$ 31,226.92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11월 16일(목) 오후 5:00 - 6:00

11월 17일(금) 저녁 8:00 - 9:00

11월 19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별 인터뷰 : 두봉 주교

“결혼 꼭 해야 할까요?”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8:00 AM 10:00 AM(교중미사) 2:00 PM(학생미사)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